

추석맞이 택배업계 '호떡집에 불난 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비상상황실 설치·현장투입인력 확대 등 나서

택배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1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택배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이달 26일 하루에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개별 업체 마다 최대 물량인 700만 상자 이상을 배송해야 한다는 예측도 있다.

이외에도 사상 최장인 10일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연휴가 끝난 이후 주간과 그 다음까지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업체들은 추석 연휴 전과 후를 나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추석 특별수송기간에 들어간다. 회사 측은 특별수송기간 중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본사에 비상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터미널과 택배차량 등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정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1000여명의 배송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정식 배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식품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냉동냉장이 필요한 화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하고, 냉동냉장 물류센터와 냉장 컨테이너 등 시설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진도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특

수기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한진은 택배물량 증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일부터 명절 이후 10월 11일까지 추석 특수기 비상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차량 확보 및 분류인력 충원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 하는 등 급증하는 물량 증가에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진은 25일부터 물량(일 최대 약 160만 박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은 물론, 고객 배송에 앞서 터미널 간 상품을 이동하는 간선차량에 대한 정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시 본사 직원도 택배현장에 투입되어 분류작업, 집배송 및 운

송장 등록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달 29일까지 약 3주간을 추석 특별 수송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추석 물량이 15일부터 크게 증가해 26일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여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본사 직원 500여명을 현장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류센터 분류인력과 콜센터 상담원도 각각 50% 증원한다. 이 기간동안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1000여 대리점에 대한 긴급 배송 지원을 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도 고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집중, 최상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 10명중 6명, 블라인드 채용 '괜찮네' 긍정 평가

'직무능력으로 객관적인 평가 가능... 능력사회로 변화할 기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블라인드 채용'이 이번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에 도입이 된다.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나섰다. 취업준비생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제공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출신학교, 어학점수, 신

체적 조건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조사회사 피एम아이(PMI)가 설문조사 플랫폼 톨리언을 통해 20~50대 남녀 2400명에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62.2%)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 능력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학벌사회에서 능력사회로 변화할 수 있

는 기회가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주를 이루었다. 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원자가 입사 지원 전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0%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은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47.3%)는 의견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25.5%)', '잘 모르겠다'(17.0%)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

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취업준비생/구직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피एम아이 측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부정 채용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초창기만큼 긍정적인 면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갤럭시노트8' 공식 출시... 30대 충성고객층 지지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 노트8'이 15일 30대 충성 고객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공식 출시됐다.

이날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어트'에서 '갤럭시 노트8' 예약 고객들 중 48%가 기존 노트 시리즈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고객이 전체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새로운 IT 기기에 관심이 많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도 있는 30대층에 인기를 얻으면서 프리미엄 폰의 입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갤럭시 노트8은 64GB(답색, 미

드나잇 블랙, 오키드 그레이 3종)와 256GB(답색, 블루, 미드나잇 블랙 2종)로 출시됐고, 출고가는 64GB 109만 4500원, 256GB 125만4000원이다.

SK텔레콤 예약 고객 중 57%는 가격이 비싸면서도 고사양인 256GB 메모리 버전을 선택했다.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미드나잇블랙으로 49%를 차지했다.

예약 고객 가운데 52%는 SK텔레콤이 새롭게 선보인 통신비 할인 프로그램 '적착할인'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 없이 11번가와 SK주유소에서 결제만해도 통신비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뉴시스

"법 개정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기업 엄벌해야"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최로 열린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 참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송승우 교수가 역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

향을 제시하며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초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뉴시스

BMW 9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 실시

기존 차량 반납 후 신차 구매...최대 600만원 지원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신차 혜택을 강화하고, 9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기존 구매 고객이 40개월 안에 동일 명의로 BMW 차량을 재구매하면 신차 모델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다.

여기에 타던 차량을 BMW 인증 중고차 BPS(BMW Premium Selection)에 반납하고, 동일 명 또는 배우자 명의로 신차를 사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특히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은 중고차로 BMW 차량을 구매한 고객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 차량을 반납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추석을 맞아 9월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 혜택을 강화한 3개의 특별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뉴시스

'5 FOR 5'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6세대 5시리즈를 신차로 구매한 고객이 7세대 뉴 5시리즈를 새로 구매할 경우 200만원, 기존 5시리즈를 BPS에 반납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2가지 혜택을 합치면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시리즈를 신차로 구매한 고객이 뉴 7시리즈를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7 FOR 7 프로그램을 통해 300만원과 BPS에 차량 반납 시 600만 원 지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중에 관계 없이 기존 BMW 신차 구매 고객이 처음으로 7시리즈를 구매할 경우 MY FIRST 7 프로그램을 통해 300만원, 트레이드-인 혜택 450만원 등 최대 7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MW 로열티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모션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BMW 전시장이나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080-269-2200)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LX, 문화소외지역 찾아 발레교실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발레교실을 운영한다.

LX는 국립발레단과 함께 오는 20일 부터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김제시와 경북 예천군·영양군 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발레교실'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문화소외지역의 발레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발레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7년 간 이어온 LX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이번 발레교실은 강수진 예술감독이 직접 발레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들려주고 동작을 지도한다.

박명식 사장은 "이번 행사가 문화소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LX는 지난해 국립발레단과 함께 경남 4개 지역에서 10개 초등학교 280명을 대상으로 발레교실을 개최한 바 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